

제9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본 회의 회의록 개회식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6월 25일 (목) 14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본회의장

식 순

- 개 식
- 국기에 대한 경례
- 애국가 제창
-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 폐 식

(사회: 의사팀장 문윤선)

(14시 00분 개식)

○의사팀장 문윤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노금식 사랑하는 560만 충청권 주민 여러분과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기에는 최민호 연합장님께서 현안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신 참석해 주신 이경우 연합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초록이 더욱 짙어지고 한 해의 절반을 향해 나아가는 6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개최하는 제9회 임사회는 제1대 충청광역연합회의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더욱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1대 연합회의가 걸어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제도를 정착시키고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가치는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주민의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지혜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묵묵한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초광역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든든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땀 흘려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초광역 협력체계의 내실화와 제도적 기반 강화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1대 연합회의의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제2대 연합회의가 더 크게 피워낼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도전과 경험은 다가올 제2대 연합회의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9회 임사회는 오늘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조례 제·개정안 등 각종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9회 임사회는 제1대 충청광역연합회의의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처음 출범하던 순간의 초심을 되새기며, 마지막까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안건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여름과 장마철을 앞두고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마다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문윤선** 이상으로 제9회 임사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07분 폐식)

○**참석 의원(13인)**

김광운 김응규 김현미 노금식 박란희 박미옥 박주화 신영호

안경자 유인호 이옥규 이한영 조성태

○ **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권승학

총 무 담 당 관 박윤정

○ **참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연 합 사 무 처 장 이경우

초 광 역 자 치 과 장 임은영

초 광 역 산 업 문 화 과 장 김민희

초 광 역 건 설 환 경 과 장 원계령